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최근 국내외 여성정책이슈나 다양한 여성현안 인식조사 결과를 새롭게 개편된 <KWDI Brief>를 통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MeToo 운동 기획시리즈 3]

전문가가 바라본 #MeToo 운동의 의미와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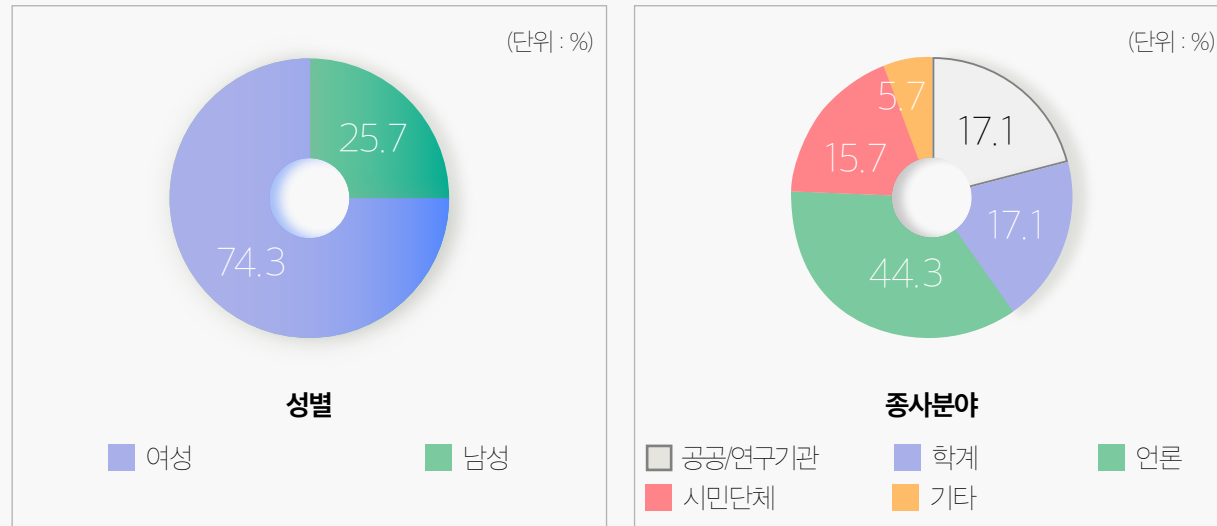
Summary

- 성평등 정책 전문가들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에서 시작된 미투운동이 우리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성차별, 성불평등을 이슈화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함. 또한 우리사회 전반으로 미투운동이 확대될 것이며, 미투운동을 계기로 향후 우리사회가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고, 남성들의 성평등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함
-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성희롱/성폭력 문제 대응에 한정됨으로써 사회구조 변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조치와 노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남녀 간 성대결 구도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대응과 노력이 필요함
- 전문가들은 미투운동에 따른 정책과제로서, 피해자 보호 강화, 피해신고 및 상담 강화,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강화 등과 같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정책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 전반의 성불평등하고 성차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가장 시급하다고 봄. 더불어 미투운동을 계기로 성평등위원회와 같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기구를 설치하여 범부처 차원의 보다 종합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개원 35주년을 맞아 성평등 정책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운동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조사개요]

기간 : 2018.4.6. ~ 4.11.
대상 : 분야별 전문가 70명
방법 : 이메일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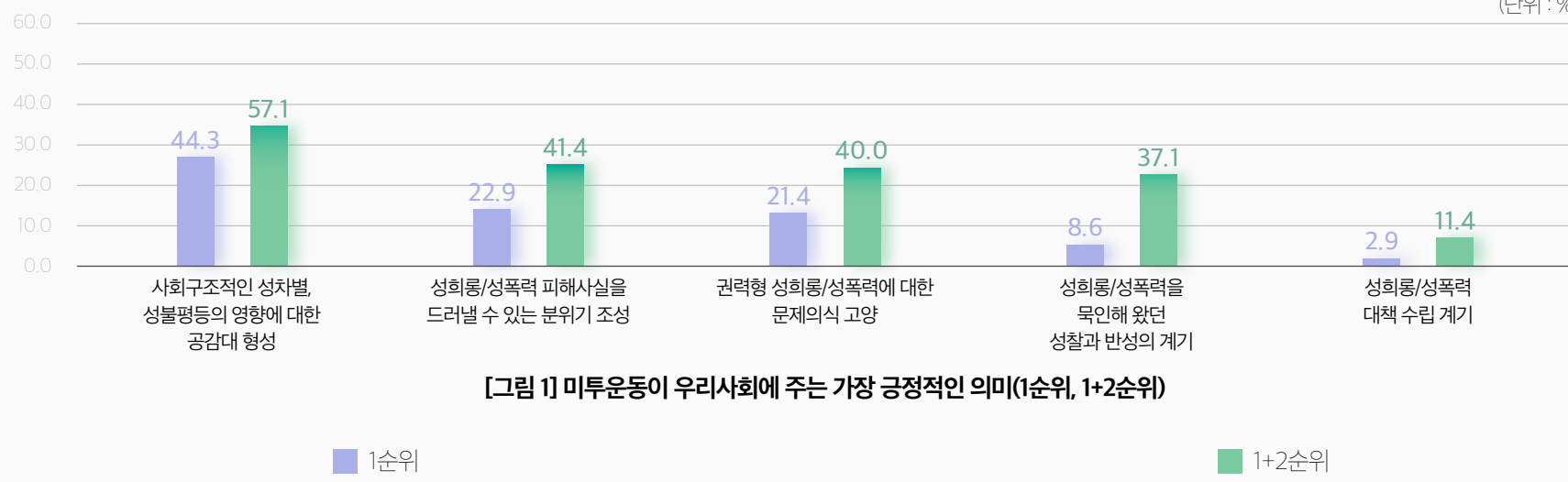


1. 미투운동이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

-미투운동이 우리사회에 주는 가장 긍정적인 의미에 대해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조사함. 1순위 응답으로 '사회구조적인 성차별, 성불평등의 영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44.3%로 가장 많았음. 그 다음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분위기 조성' 22.9%, '권력형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 고양' 21.4% 순이었음

-1순위~2순위를 종합한 결과 역시 '사회구조적인 성차별, 성불평등의 영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57.1%), '성희롱/성폭력 피해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분위기 조성'(41.4%), '권력형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 고양'(40.0%), '성희롱/성폭력을 목인해왔던 성찰과 반성의 계기'(37.1%)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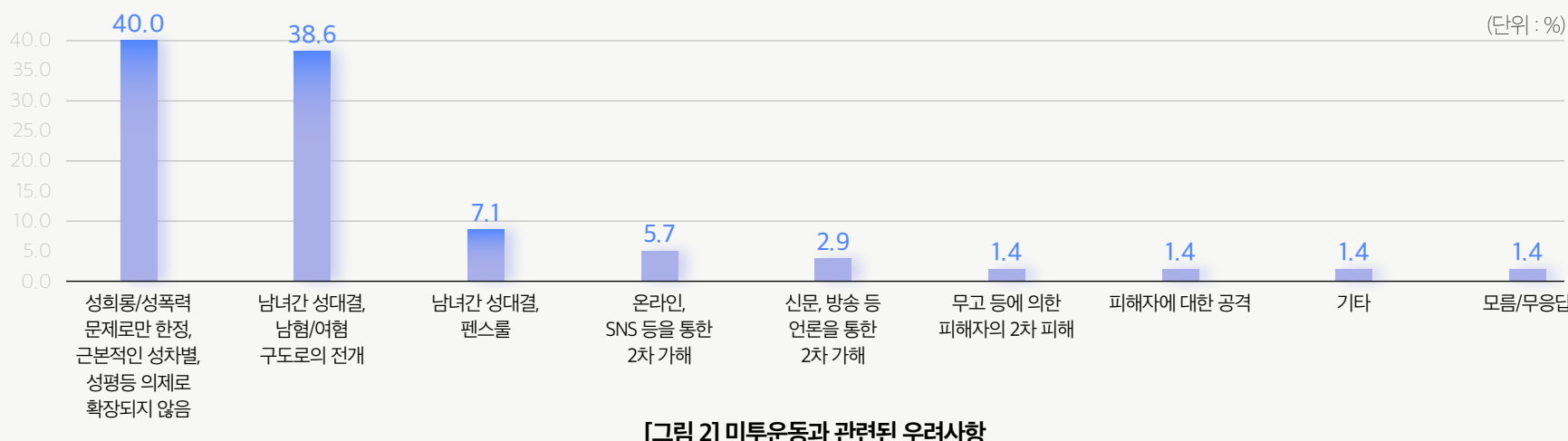
-이는 전문가들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에서 시작된 미투운동이 우리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성차별, 성불평등을 이슈화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2. 미투운동과 관련된 우려사항

-미투운동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되는 사항을 조사한 결과, '성희롱/성폭력 문제로만 한정, 근본적인 성차별, 성평등 의제로 확장되지 않음'을 우려하는 의견이 40.0%로 가장 많았고, '남녀 성대결, 남혐/여혐 구도로의 전개'에 대한 우려가 38.6%로 그 다음을 차지함

-이는 전문가들은 미투운동이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성차별, 성평등 의제를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차별, 성불평등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조치와 노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한정되고 남녀간 성대결 구도로 전개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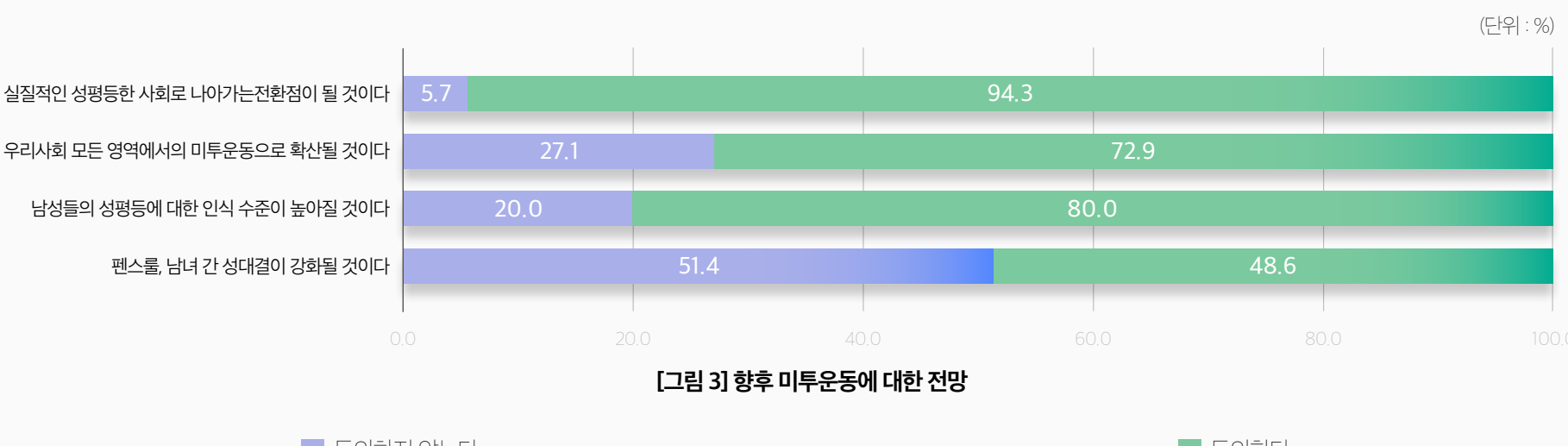


3. 미투운동에 대한 향후 전망

-향후 미투운동에 대한 전망을 질문한 결과, '실질적인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에 대해 94.3%가, '우리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미투운동으로 확산될 것이다'에 대해 72.9%가, '남성들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에 대해선 80.0%가 동의함

-이는 전문가들은, 특정 영역이 아닌 우리 사회 전반으로 미투운동이 확대되며, 미투운동을 계기로 향후 우리사회가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고, 남성들의 성평등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보여줌

-반면 '펜스를, 남녀 간 성대결이 강화될 것이다'에 대해 51.4%는 '동의하지 않는다', 48.6%는 '동의한다'고 전망함. '성대결이 강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 많았지만, 이는 앞서 살펴본 대로 '남녀 간 성대결, 남혐/여혐 구도로의 전개'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점과 무관하지 않아서, 향후 이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대응과 노력이 필요함



4. 미투운동을 계기로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할 정책과제

-미투운동을 계기로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할 정책 과제를 1순위~3순위까지 조사한 결과, 1순위 응답에서는 '성불평등하고 성차별적인 조직문화 개선'이 54.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7.1% 순이었음. 전문가 중 절반 이상이 '성불평등하고 성차별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하여, 이와 관련한 정책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1순위~3순위 응답을 종합한 결과에서도, '성불평등하고 성차별적인 조직문화 개선'(74.3%)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았고, '성평등정책 추진기구/체계(성평등위원회 등) 마련'(32.9%),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제 정비'(31.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30.0%), '펜스, 맨스플레인 등 백래시 해소'(22.9%),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에 대한 신고 및 상담 강화'(21.4%),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강화'(20.0%) 순으로 나타남

-전문가들은 피해자 보호 강화, 피해신고 및 상담 강화,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강화 등과 같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정책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사회 전반의 성불평등하고 성차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가장 시급하며, 더불어 미투운동을 계기로 성평등위원회와 같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기구를 설치하여 범부처 차원의 보다 종합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